

인도 부실채권 증가로 금융 리스크 고조

이대우 수석연구원, 글로벌연구센터 (Ldw@posri.re.kr)

목차

1. 인도은행 부실채권 급증 및 영향
2. 부실채권 급증 배경
3. 인도정부 정책수단 및 효과
4. 시사점

Executive Summary

- **인도은행들의 전체 여신 잔액 중 부실채권 비중이 최근 급격히 상승하여, 인도은행의 안정성 수준이 10년 내 가장 불안한 상황에 직면**
 - 2015 회계연도 말('16.3월) 기준 인도은행들의 부실채권 비중은 같은 해 상반기('15.9월)에 비해 2.5%p 증가한 7.6%를 기록하였으며, 잠재 부실채권까지 포함 시 그 비중은 11.5%로 급등 (부실채권 세계 평균 7.1%, Worldbank)
 - 이로 인해, 인도 중앙은행은 최근 10년 내 은행 안정성 지수가 최고로 악화되었다고 발표하고, 은행권의 부실채권 구조조정 필요성을 역설
- **철강, 통신, 전력, 건설업에 부실채권이 집중되어 있으며, 특히 철강산업은 수익성 악화로 인해 은행권 채권 부실화의 주범으로 지목**
 - 철강산업의 이자비용은 EBITDA의 200%에 근접해, EBITDA로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으며, 인도의 대표적인 민간 철강사들의 부채비율 또한 200%를 초과할 정도로 과도한 부채로 인한 후유증에 직면
- **인도 중앙은행은 파격적으로 상환부담을 줄여주는 프로그램을 도입하고, 인도 정부는 수입재에 대한 강력한 보호무역 정책을 실시해 피해 산업을 지원 중이나, 문제의 본질적 해결보다 연착륙을 유도하는 것에 집중**
 - 인도 중앙은행은 과도한 부채로 위기에 직면한 업체들을 위해, 상환기간을 대폭 연장하고, 연간 상환 부담도 크게 줄여주는 5:25 scheme을 도입
 - 인도 정부는 수입재로 인한 내수 가격 하락 방지 및 국내 철강사 보호를 위해 세이프가드, 최저 수입가격, 반덤핑 공세 등 각종 보호 무역 조치 남발
 - 인도 중앙은행의 지원 정책은 오히려 은행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고, 각종 수입 억제 정책은 수요산업 피해 증가 및 교역 상대국의 반발 소지가 커서 부실채권 문제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기는 어려움
- **인도경제의 견조한 성장세 이면에 부실채권 문제가 누적되고 있음을 직시할 필요가 있으며, 금융 리스크 점검 및 대응책 마련 필요**
 - 인도의 대외 채무 증가로 현재 인도경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대외적으로 더 취약한 상황에 노출
 - 인도 금융 리스크 고조 시 루피화 폭락 가능성 높아, 금융시장 모니터링 강화 및 잔여 만기가 긴 변동금리 대출의 경우 적정 수준의 리스크 헷징 필요

1. 인도은행 부실채권 급증 및 영향

□ 인도은행들의 전체 여신 잔액 중 부실채권 비중이 최근 급격히 상승하면서, 인도경제에 새로운 위협요인으로 대두

○ 2015 회계연도 ('16.3월말) 기준으로 전체 여신 중에서 부실채권의 비중은 7.6%에 이르며, '15년 상반기('15.9월말)의 5.1%에 비해 2.5%p 상승

- 라구람 라잔 인도 중앙은행 총재는 '17.3월까지 은행권의 부실채권 처리를 완료하겠다는 정책을 수립, 이로 인해 채무조정이 진행 중인 채권의 부실채권 분류 및 편입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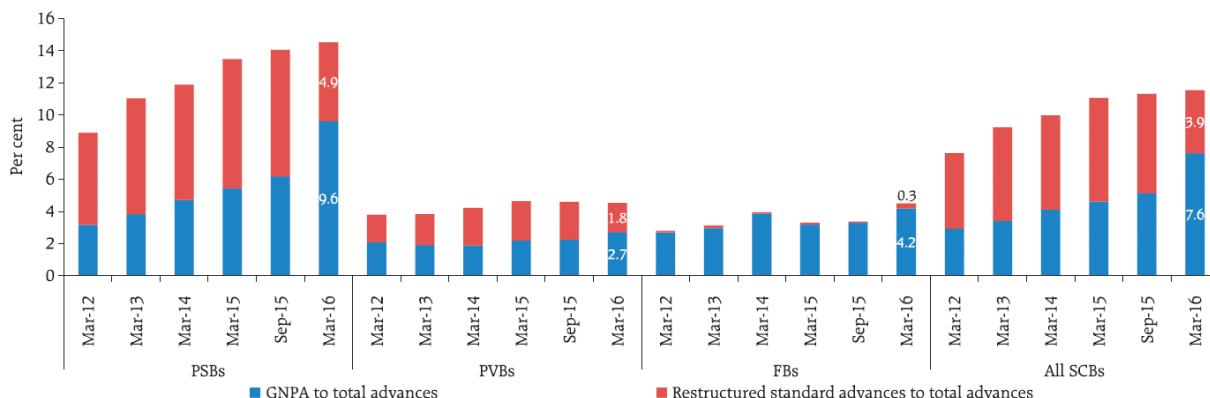
- 은행들 가운데 국유은행들의 부실채권 비중은 9.6%로 민간은행 2.7%나 외국은행 4.2%에 비해 월등히 높은 상황

○ 채무조정 채권을 포함한 잠재 부실채권 비중은 11.5%로 상승하며,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부실가능 채권은 18%까지 상승 우려

- 인도 공식 부실채권 비중 7.6%는 세계 평균과 유사한 수준이나(전세계 국가 은행권 부실채권 비중은 평균 7.1%, Worldbank), 잠재 부실채권까지 포함할 경우 11.5%까지 상승

- Credit Suisse가 '16년 초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, 인도은행들이 인도재벌들에 대출해 준 금액 중 상환 가능성이 낮은 채무를 포함 시 부실채권 비중은 최대 18%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(Forbes Asia, '16.2.23.)

〈인도은행 부실채권 비중 추이〉



자료: 인도 중앙은행 Financial Stability Report Issue No.13 (2016.6)

주: GNPA(Gross Non Performing Advances)

PSB(Public Sector Bank), PVB(Private Bank), FB(Foreign Bank),
SCB(Scheduled Commercial Bank)

□ 부실채권이 증가하면서 인도 은행의 수익성은 악화일로에 있으며, 특히 부실채권 비중이 더 높은 국유은행의 수익성 타격 심화

- 자산수익률(RoA)과 자기자본수익률(RoE)는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 중이며, 대출금에 대한 대손상각 증가율은 2013년 이래 두 자릿수 기록
 - 2011년 1.1%이던 자산수익률은 2015년 0.4%로 하락하였고, 자기자본수익률 또한 13.4%에서 4.8%로 크게 하락
 - 2013년 대손상각 규모는 전년대비 80.3% 증가하였으며, 2014년과 2015년에도 각각 23.4%와 27.3%로 두 자릿수의 높은 증가세를 보여, 기존 대출금에 대한 부실이 심화되는 추세
- 대출 부실이 심화되면서 인도 은행들의 세후 순이익은 2015년 기준 전년대비 43% 감소
 - 특히 국유은행의 세후 순이익 감소가 심각하며 2015년 기준 전년대비 118.1% 감소. 한편 외국은행은 14.8% 감소, 민간은행은 오히려 11.6% 증가
 - 인도 중앙은행 총재의 조속한 부실채권 처리 방침 표명 이후 국유은행의 보유 채권에 대한 부실처리 작업이 속도를 내면서 국유은행의 손실 또한 증가

〈인도 은행들의 수익성 지표 추이〉

회계연도	RoA(%)	RoE(%)	세후 순이익 증가율(%)	대손상각 증가율(%)
2011-12년	1.1	13.4	14.6	△13.1
2012-13년	1.0	12.9	12.9	△8.5
2013-14년	0.8	9.5	△14.1	80.3
2014-15년	0.8	9.3	10.1	23.4
2015-16년	0.4	4.8	△43.0	27.3

자료: 인도 중앙은행 Financial Stability Report Issue No. 13 (2016.6.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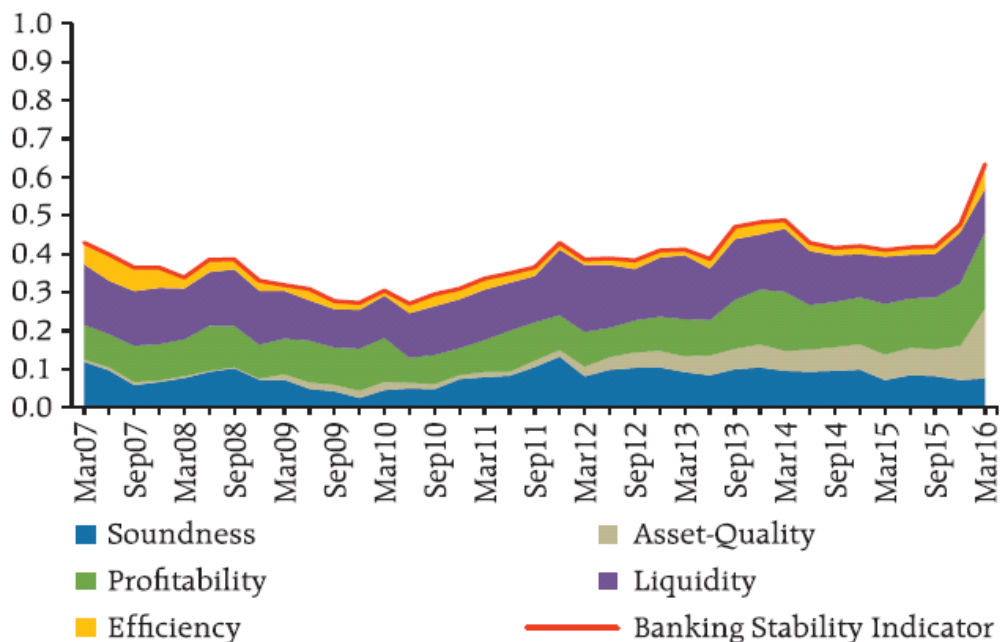
주: RoA (Return on Asset, 자산수익률), RoE (Return on Equity, 자기자본수익률),
증가율은 모두 전년대비 증가율

□ 인도 중앙은행은 인도은행의 안정성 수준이 최근 10년 내 가장 불안한 것으로 평가함으로써, 인도 금융 안정성에 대한 경각심 고조

- 인도 중앙은행이 발표한 은행 안정성 지수는 2010년 이후 악화추세로 전환, '16.3월 0.6을 초과함으로써, '10년 저점의 2배 수준에 도달
 - 안정성 지수가 높을수록 금융 불안정이 심화되는 것을 의미하며, '15.9월 이후 급격히 상황이 악화되는 모습 시현

-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, Asset-Quality(자산 건전성) 항목의 수치가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, 이는 부실채권 확정 분류 작업이 가속화되었기 때문
- 인도 중앙은행은 향후 글로벌 경제 상황이 급변하여 인도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할 경우, 인도 금융시장 안정성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는 견해 피력
- 인도 중앙은행은 '16.6월에 발표한 금융 안정성 보고서(Financial Stability Report)에서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마이너스 금리와 양적완화 같은 비전통적인 금융 정책들이 인도경제에 미칠 부작용을 우려
- 또한, 인도는 전세계적으로 원유를 포함한 상품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현재 이득을 보고 있지만, 향후 기조가 급변할 경우 예상치 못한 리스크 출현 우려

〈은행 안정성 지수〉



자료: 인도 중앙은행, Financial Stability Report Issue No.13 (2016.6.)

주: 지수가 높을수록 안정성 저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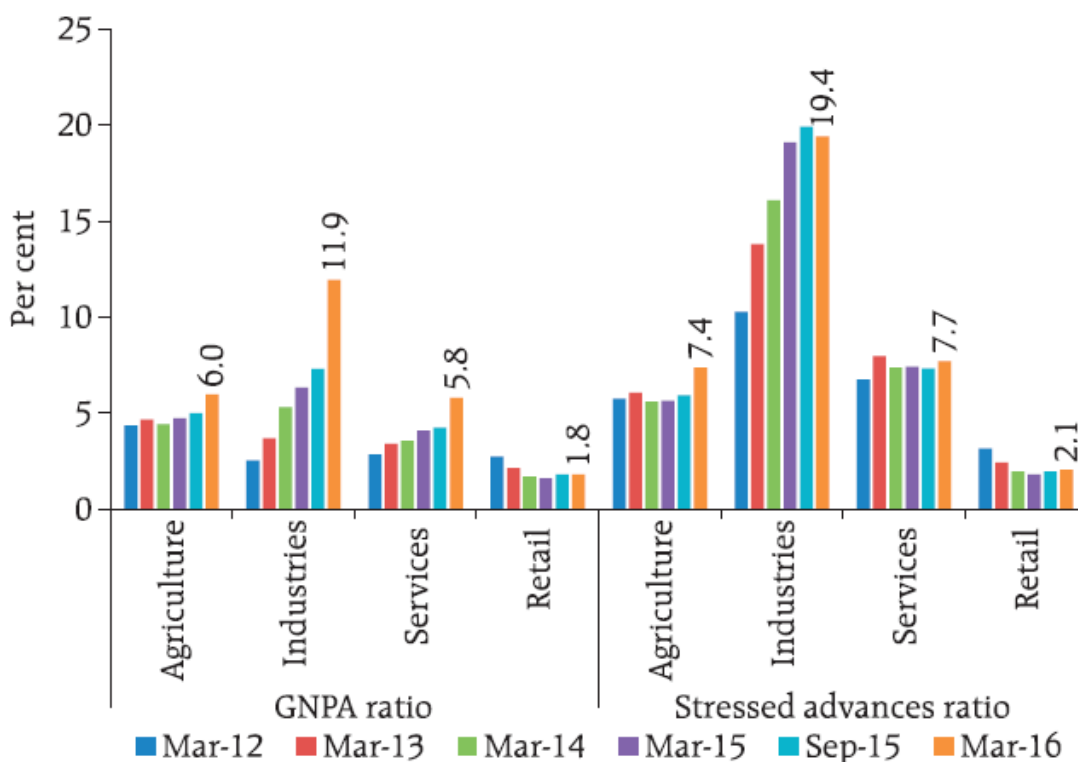
2. 부실채권 급증 배경

□ 은행채권 부실의 주 대상은 광공업 부문으로, 동 산업에서 잠재적으로 부실화 가능성이 있는 채권 포함 시 부실채권 비중은 20% 수준에 도달

- 농업이나 서비스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규모 자금 유치가 필요한 광공업에 대출 집중, 상대적으로 채권 부실화 비중도 상승

- 광공업의 스트레스 채권(부실 확정 및 잠재 부실 가능성 높은 채권) 비중은 '16.3월 기준 19.4%에 달하며, '12.3월 이후 증가 추세
- 광공업의 부실채권 비중이 '15.9월 이후 크게 증가한 것은, 잠재적으로 부실 가능성 높은 채권 가운데 상당수가 재심사 통해 부실로 확정되었기 때문

〈산업별 부실채권 비중 및 스트레스 채권 비중〉



자료: 인도 중앙은행, Financial Stability Report Issue No.13 (2016.6.)

주: GNPA (Gross Non Performing Advances)는 총 부실채권, Stressed Advances는 총 부실채권에 채무 재조정 중인 채권 포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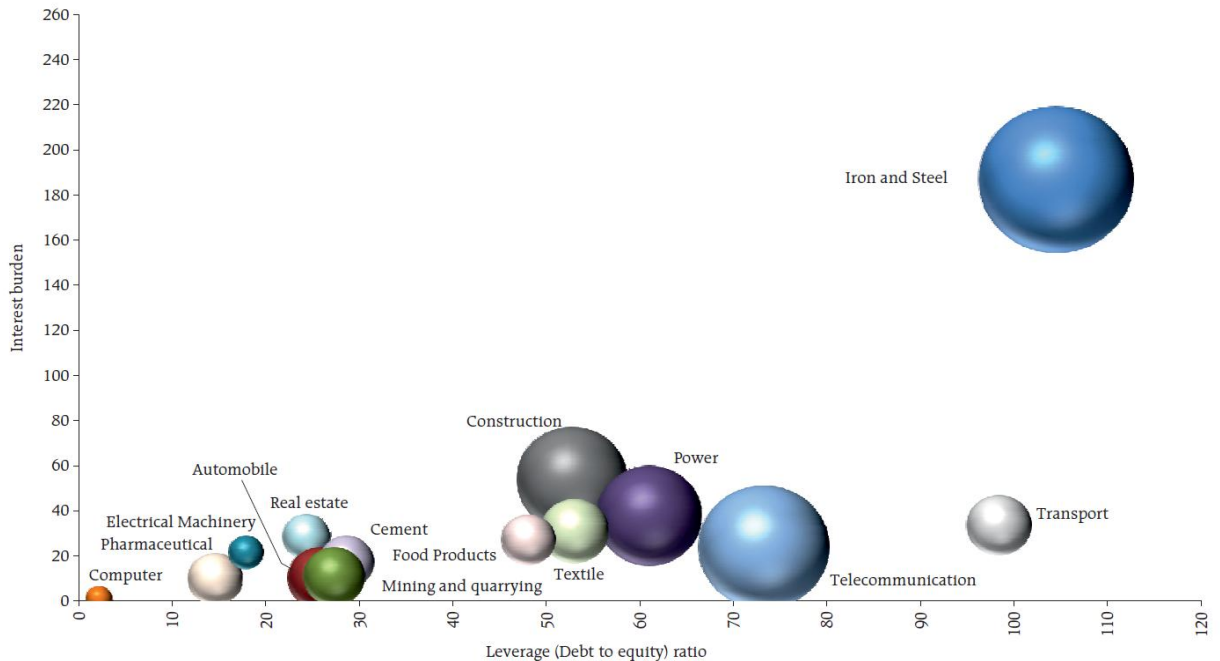
□ 광공업 분야에서 은행권 대출 규모가 큰 산업은 철강/통신/건설/전력 순이며, 부실채권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업종은 철강업으로 판명

○ 철강산업은 은행권으로부터 대출규모가 타 업종 대비 제일 크며, 철강 경기 부진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이자부담 또한 최고 수준

- 철강산업의 이자비용은 EBITDA의 200%에 근접해, EBITDA로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
- 철강산업의 부채비율(장기 차입금 대비 자기자본 비율)은 100%를 넘어서며, 단기 차입금과 매입채무까지 포함할 경우 부채비율은 200% 초과 예상

- 2015년 JSW의 부채비율(총 부채 대비 자기자본 비율)은 280%에 이르며, 채권단과 채무 재조정에 들어간 부산스틸의 경우 1,062%에 이릅니다

〈인도 산업별 리스크 프로파일〉



자료: 인도 중앙은행, Financial Stability Report Issue No.13 (2016.6.)

주: 이자부담(Interest Burden)은 EBITDA 대비 이자비용 비율(%),
부채비율(Debt to Equity Ratio)는 장기차입금 대비 자기자본 비율(%)
원의 크기는 총 대출 규모

3. 인도정부 정책수단 및 효과

□ 인도 중앙은행은 채무상환 재조정 프로그램 도입을 통해 부실채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, 과감한 구조조정 보다는 연착륙 유도에 집중

○ 인도 중앙은행은 5:25 scheme 도입을 통해 경영난에 직면한 기업의 채무 상환 부담을 줄여, 인도경제에 주는 충격을 완화하겠다는 방침

- 5:25 scheme은 인프라/철강/발전 등 투자회수기간이 긴 산업에 대해 기존 대출의 상환기간을 장기간 연장(최대 25년)해 주고 대신 매 5년 혹은 7년마다 심사를 통해 일시 상환 가능하도록 하는 상환 일정 재조정 프로그램
- 부실화 가능성이 있는 채권에 대해 만기 일시 상환을 강요하기 보다 5년 마다 계약을 갱신해서 25년이 되는 해에 상환을 마친다는 개념으로 5:25 scheme이라 불림

- 예로서, 에사르 스틸(Essar Steel)의 5:25 scheme 적용 차입금의 경우, 매년 상환 금액이 기존 차입금 상환 일정에 비해 기업에게 매우 유리

〈에사르 스틸의 5:25scheme에 따른 차입금 상환 스케줄 예시〉

회계연도	525scheme 적용 차입금 상환 Plan	기존 타 차입금 상환 Plan
2015년	1%	5%
2016년	1%	5%
2017년	1%	7%
2018년	1%	10%
2019년	1%	13%
2020년	2%	13%
2021년	2%	14%
합계	9%	67%

자료: The Economic Times, '15.11.30일자

□ 인도정부는 부실채권 증가가 은행부실로 전이될 것을 우려하여, 부실채권 문제가 가장 심각한 철강산업의 경우 수입강재에 대한 보호무역 공세를 통해 자국 업체의 수익성 확보를 지원

○ 인도정부, 수입 철강제품에 대해 세이프가드 관세 부과, 최저수입가격 지정, 반덤핑 관세 부과 등 전방위 공세 강화

- '15.9월 열연강판에 대한 20% 잠정 세이프가드 관세를 부과하였으며, '16.2월 173개 철강제품에 대해 6개월간 최저수입가격을 적용하고, '16.8월에는 한,중,일,러시아,브라질,인도네시아산 열연강판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잠정 부과

○ 인도정부의 보호무역 공세 배경에는 수입 철강제품 증가로 인한 인도 철강사들의 경영실적 악화 및 이로 인한 은행 대출 부실화 우려가 자리하고 있음

- 인도 철강사들은 과거 무리한 설비 증설에 따른 후유증으로 인해, 과도한 차입금 이자부담에 직면하고 있으며, 수입산과의 경쟁으로 인한 가격 하락으로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음
- 인도 철강업체들이 은행권으로부터 빌린 대출금액은 약 U\$450억에 이르며, 이 중 27% 정도가 이자 상환이 어려운 잠재 부실채권으로 분류

□ 인도정부의 각종 지원 정책은 은행에 대한 부담을 초래하고 다른 산업에 대한 피해로 이어지는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

○ 5:25 scheme 도입으로 은행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, 부실채권으로 인한 손실 증가로 은행권의 자본 확충 필요성도 증가

- 대출금 상환기간을 최장 25년으로 연장해 주면서, 자금 조달 기간과 운용 기간의 mis-match 상황이 발생하여, 향후 금리 급변동 시 리스크 고조 우려
- 부실채권 비중이 증대되면서 인도 은행들의 자본구조가 취약해지고 있으며, 이로 인해 추가 자본확충 필요성이 대두. 특히 정치권과 연계되어 방만한 대출을 일삼았던 국유은행들에 대한 추가 증자 필요성이 부각

○ 지나친 철강 보호무역 공세로 인해 인도 내 철강 수요산업의 피해가 커지고 있으며, 무역 상대국으로부터 WTO 제소 움직임도 대두

- 인도 내 철강제품 수요업체들은, 수입억제를 통한 가격인상은 임시 방편에 불과하고 장기적으로 수요업체들의 내수 및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인위적인 가격 조정 대신 시장 논리의 중요성을 역설
- 일본, 유럽, 대만의 철강업체들은 자국 정부와 협의하면서, 인도정부의 무차별적인 보호무역 공세를 GATT 규정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WTO에 정식으로 제소하려는 움직임 표명

4. 시사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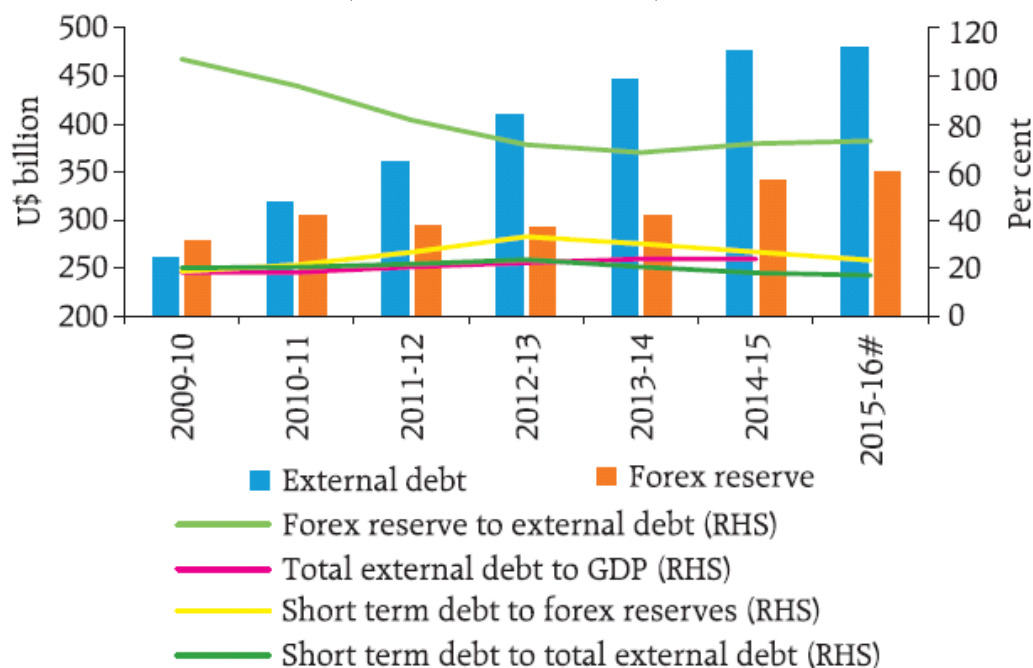
□ 인도경제가 비록 현재까지 견조한 성장세를 시현 중이나 은행권 부실채권 증가로 인한 금융 리스크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

○ 인도 은행들의 실제 부실채권 비중은 중앙은행이 발표한 공식 부실채권 비중을 크게 뛰어넘는 수준일 가능성 존재

- 은행들은 손실 축소를 위해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대출이라도 최대한 늦게 부실채권으로 처리하는 경향이 크며, 대마불사 논리를 적용하여 인도재벌에게 대출해 준 금액은 가급적이면 부실채권으로 처리하지 않는 경향
- Credit Suisse의 비공개 보고서를 인용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, 인도의 부실채권 비중은 최대 18%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하며, 이는 최근 은행 부실 문제가 심화된 이탈리아 부실채권 비율과 대등한 수준

-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인도의 대외채무가 급증하고, 대외채무 대비 외환보유고 비중 또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, 해외발 리스크에도 취약
 - 인도의 대외채무는 2009년 U\$2,600억에서 2015년 말 U\$4,700억으로 약 80% 증가하였으며, 대외채무 대비 외환보유고 비중도 2010년 이후 100%를 하회하는 등 2008년 금융위기 이전 대비 안정성이 급격히 하락
 - 미국의 금리인상, 유럽 금융위기 발생 시 신흥국 자본유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인도은행들의 높은 부실채권 비중 감안 시 금융 리스크 고조 우려

〈인도의 대외채무 추이〉



자료: 인도 중앙은행, Financial Stability Report Issue No.13 (2016.6.)

□ 인도 은행권 리스크 고조에 대비하여, 한국기업의 인도 사업장들에 대한 리스크 노출 상황 점검 및 대응책 마련 필요

- 인도 금융 리스크 고조 시 루피화 폭락 가능성이 크고 자금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어, 금융시장 모니터링 강화 및 대응책 마련 필요
 - 향후 인도 금융시장이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, 금융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, 환 위험에 노출된 부분에 대한 사전 점검 필요
 - 잔여 만기가 긴 변동금리 대출의 경우 환위험과 이자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가 커질 위험이 있어 적정 수준의 리스크 헷징 방안 강구 필요

이 자료에 나타난 내용은 포스코경영연구원의 공식 견해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.

[참고자료]

[보고서/논문]

인도 중앙은행, Financial Stability Report Issue No.13 (2016.6)

[언론]

Megha Bahree, “Corporate India’s Financial Problems Worsen”, Forbes Asia, 2016년 2월 23일자

Sangita Mehta, “30 lenders of Essar Steel agree to move Rs 14,500 crore to term loans under 5:25 scheme”, The Economic Times, 2015년 11월 30일자

“Steel industry owes Rs 300,000 crore to banks”, The Times of India, 2016년 8월 1일자

“Bank loan to steel sector grew 21 % over past 5 years”, Business Standard, 2015년 8월 11일자